

지난해 전북도내 중기제품 공공구매액 3.9조원

# 최근 5년새 사상 최고치 경신

전북중기청, 도내 32곳 전체 구매액의 약 90% 수준... 홍보 통한 공공구매제도 관심도 제고 '결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해 전국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사상 최초 100조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도 3.9조 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하는 도내 32개 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2019년도 전체 구매액은 4.4조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약 90%로 전국(77.8%) 대비 12.2%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증가를 또한 최근 4

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2019년 증가율(17.5%)이 2018년(8.9%)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등 전국(11.7%) 대비 5.8%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공공구매제도 관심도 제고와 더불어 수시 모니터링 및 점검으로 이행을 함상에 힘쓴 전북중기청과 공공구매비율을 늘리려는 전북도, 전북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개발제품은 42.8% 증가한 1,711억 원, 여성기업 제품은 30% 증가한 5,524억 원, 장애

인기업 제품은 24.6% 증가한 1,053억 원을 구매했으며, 이는 각 구매대상별 법정 의무비율을 크게 초과달성한 것이다.

한편,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 구매목표액(3조8,000억원)의 86%(인 3조 2,000억 원)이다.

정부는 공공구매를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매년 심의·공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및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월 개최한 바 있으며, 구매목표비율 달성 여부 등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해 빠진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올해에도 도내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무역협회, 수출입 물류

### 현장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물류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사업은 물류 전문가들이 수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입 프로세스, 관세/통관, 물류센터 활용 등 물류 전반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사업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오는 11월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지난달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社), 관세사, 물류센터(창고) 운영사, 화재/적하보험사, 법무법인, 전자상거래 기업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 구성을 완료했다.

무협은 컨설팅 대상 기업을 지난해 85개에서 100개社로 확대하고 컨설팅 분야도 법률자문, 전자상거래, 신타 컨설팅 부문을 신설해, 보다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컨설팅(유선, 화상 등)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용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현장 컨설팅이 코로나19로 물류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 효율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1월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해 가능하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다. 단, 심화 컨설팅의 경우 비용 일부를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류서비스실 ☎ 02-6000-5359, e-mail: sk.kang@ki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로컬푸드, 집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그동안 매장을 방문해야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컬푸드직매장에 20일부터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신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전주푸드직매장 종합경기장점과 송천점 두 곳이 운영되며, 전주지역 내 소비자가 전화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운행되는 배송차량을 통해 생산농가가 당일 수확한 신선한 제철농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 '농식품 기술창업의 꿈 실현시켜드립니다'

### 농식품부, 내달 11일까지 산·학·관 협력 농업 대학생 기술창업지원 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학교 실험실을 통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중 창업교육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받을 대상자를 오는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대상 농식품 기술 창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대학(원)생 농식품 기술 창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산·학·관 협력을 통해 유망한 청년 기술창업자 12팀을 육성·지원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정부는 창업팀에게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자금(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팀은 대학교 실험실 등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롯데연구소(슈펠퍼로보틱(자동차 농업 로봇 개발) 등 농식품 관련 기업은 산업동향, 제품 기획, 사업화 자문 등 분야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 창업팀에게는 차년도 농식품 벤처육성 사업(사업화 자금 최대 3,000만원 지급) 우선 선발권을, 우수팀의 지도 교수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 실용화 재단이사장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농식품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혹은 3년 이내의 창업자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1명을 반드시 포함한 최대 3명의 (예비)창업팀으로 신청해야 하며, 대학 창업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선발 절차는 신청 요건 등 서류검토 후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혹은 세종농식품벤처창업센터(044-868-6834~6837)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 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173석, 찬성 171석, 반대 0석, 기권 2석으로 통과시켰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가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되도록 했다. /뉴스

## '우리밀 신제품 육성 활용 우수유전자원 찾아라'

### 농진청, 80개 나라 2500여 밀 유전자원 현장평가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산 밀 자급률 향상 정책에 맞춰 우리밀 신제품 육성에 활용될 육종소재 발굴하고, 정부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오늘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밀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연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밀 식량자급률은 1.2%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밀 식량자급률을 9.9%까지 높이기 위해 밀 수매제 부활, 품질등급제, 고품질 품종 개발 등의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평가회는 80개 나라에서 수집해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존하고 있는 2,500여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육종가들은 야생종, 재래종, 도입종,



내도복성 우수유전자원 IT323098

육성종 등 농업 형질을 직접 관찰한 후 평가해 우리밀 신제품 육성 등 연구에 활용할 자원을 선발한다. 농진청은 자원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강밀, 조경밀 등 대표품종을 같이 재배하고 있으며, 우수자원 선발 시 기

준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자원에는 대표품종보다 성숙기가 빠른 것으로 예측되는 자원, 줄기 길이가 50cm 내외인 자원, 까락이 길고 방사형으로 배열된 야생밀 자원 10여 개도 포함돼 있다. 자원들의 주요 표현형질인 성숙기, 줄기 길이 등과 화상 정보는 농촌진흥청 씨앗은행(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genbank.rda.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평가회에서는 국산밀(금강밀)로 만든 빵과 쿠키를 시식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현장평가회에서 선발된 자원들은 우리밀 육성에 필요한 육종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양될 예정이다. 지원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씨앗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협생명(주)은 정부의 10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농(임)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산재형' 상품을 개발·보급했다.

## 부담 '줄이고' 보장 '늘리고'

### NH농협생명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인원 증가 2018년 산재보험 수준 보장 강화 '산재형' 상품 개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의 농업인 정책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강화로 가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정부의 10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농(임)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산재형' 상품을 개발·보급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산재형 상품은 사망시 최대 1억3,000만원 정액보장을 해, 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고연령층에게 더 큰 보장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해질병 치료급여의 경우 보장금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했고,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80대도 가입이 가능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경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형 가입자는 2018년 8만9,000명, 2019년 14만2,000명, 2020년 4월 기준 12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NH농협생명은 올해 하반기에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으나 보험기간이 경과해 사망보험금이 부지급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30일까지는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

그밖에 버스나 승용차 등 농기계로 운전을 이용한 농작업장 이동 시 빈번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교통사고보험 특약, 여성 및 고령 농업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폴질 특약도 도입하여 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지원 비중은 일반 농업인은 50%, 영세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70%다.

특히 작년에 영세농업인 지원 제도가 도입돼 소득이 열악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올해는 평균연령이 높은 농업인들을 고려해 영세농업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 했다.

즉,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인데, 이를 통해 영세농업인으로 국고지원을 받은 인원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높아졌다.

지속적인 보장강화로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을 5,000만원이 60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여명(5.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86만명 가입이 예상된다.

한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1999년 '농업인안전공제'로 시작했다. 2012년 3월 NH농협생명 출범에 따라 보험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재정·시행된 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성별,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 농업인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일반보험과 달리 입원·수술 등에 의해 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NH농협생명 이숙 총국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은 협동조합보험사 NH농협생명의 정제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특별한 상품"이라며,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에게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생명은 정부의 10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농(임)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산재형' 상품을 개발·보급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산재형 상품은 사망시 최대 1억3,000만원 정액보장을 해, 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고연령층에게 더 큰 보장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해질병 치료급여의 경우 보장금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했고,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80대도 가입이 가능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경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형 가입자는 2018년 8만9,000명, 2019년 14만2,000명, 2020년 4월 기준 12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NH농협생명은 올해 하반기에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으나 보험기간이 경과해 사망보험금이 부지급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30일까지는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

그밖에 버스나 승용차 등 농기계로 운전을 이용한 농작업장 이동 시 빈번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교통사고보험 특약, 여성 및 고령 농업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폴질 특약도 도입하여 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지원 비중은 일반 농업인은 50%, 영세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70%다.

특히 작년에 영세농업인 지원 제도가 도입돼 소득이 열악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올해는 평균연령이 높은 농업인들을 고려해 영세농업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 했다.

즉,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인데, 이를 통해 영세농업인으로 국고지원을 받은 인원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높아졌다.

지속적인 보장강화로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을 5,000만원이 60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여명(5.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86만명 가입이 예상된다.

한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1999년 '농업인안전공제'로 시작했다. 2012년 3월 NH농협생명 출범에 따라 보험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재정·시행된 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성별,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 농업인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일반보험과 달리 입원·수술 등에 의해 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NH농협생명 이숙 총국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은 협동조합보험사 NH농협생명의 정제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특별한 상품"이라며,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에게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동반성장몰' 참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 국민연금, 직원 개별·부서 사업추진 소요물품 구매 등 통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동반성장몰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반성장몰은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이용기관에 한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업(공공기관 포함)전용 쇼핑몰로서,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품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판로확대 등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중소기업 외에 지역 소

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단 본부에서 새내장터를 운영하며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지역 로컬푸드 등 판매를 지원해오고 있다.

공단은 향후 직원들의 개별구매는 물론 부서의 사업추진 소요물품 구매 등을 통해 동반성장몰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협력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동반성장몰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